

[大河기획/한라산 학술 대탐사(217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51)

한라산 서북사면 경관 이루는 봉우리들

입력 : 2004. 10.22. 00:00:00



이슬령·젯망·사제비오름

탐사팀은 불래오름 동사면을 지나 이슬령오름으로 향했다. 이슬령오름 동사면에도 규모는 작지만 습지를 형성하고 있다. 불래오름 굽부리는 이슬령오름에서 보아야 제맛이다. 탐라각 방향으로 트인 불래오름의 굽부리가 선명하다.

▲영실 구등반로에서 바라본 젯망(망체)오름.

이슬령오름의 굽부리는 많이 침식돼 얇아졌다. 굽부리는 동수악처럼 습지로 이뤄져 있다. 이슬령오름 정상에서는 동편으로 영실등산로와 병풍바위를 스쳐가는 등반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탐사팀은 이슬령오름에서 젯망오름(망체오름)으로 향했다. 망체오름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수천 지류를 통과해야 한다. 무수천(외도천, 광령천)은 한라산 정상에서 발원해 Y계곡을 지나 제주시 외도로 이어지는 제주시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하천이다.

젯망오름의 소재지는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산 138-1번지이다. 1100도로 탐라휴게소에서 한라산 쪽을 바라볼 때 3개의 오름 중에서 제일 왼쪽의 사제비 동산 옆에 둥그스름하게 누워있는 오름이다. 어리목휴게소 옆에 있는 어승생오름과 마주보는 위치에 있다.

이슬령오름을 지나 가파른 계곡으로 난코스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 오름의 정상부는 온통 조릿대로 무성한데 멀리서보면 마치 잔디를 깔아놓은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 오름 정상부가 제주조릿대로 뒤덮힌 오름은 이 곳 말고도 큰두레왓, 민대가리, 흙붉은오름, 만세동산, 알방애오름 등 무수히 많다.

젯망(젯바퀴) 모양의 생김새와 같다 하여 젯망오름이라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북서쪽으로 터진 말굽형 화구이다. 그러나 어리목 등산로 숲길을 통과해 사제비동산에 오르면 젯망오름의 분화구는 원형경기장처럼 보인다.

어리목등반로로 한라산 정상으로 향할 때 숲길을 헤쳐나오면 당도하는 곳이 사제비 동산이다. 그러나 탐사팀은 이 길을 택하지 않고 젯망오름에서 내려 무수천 계곡과 능선을 따라 우회해 사제비로 향했다. 이미 젯망오름에서 기운을 거의 소진해 발걸음이 무겁다. 계곡쪽에서 보면 사제비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계곡 사면을 돌아 동쪽 방향으로 사제비를 오른 것이

다. 사제비는 작은 새를 잡는 새매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데서 어원을 찾기도 한다.

/특별취재팀

[전문가 리포트]1100고지 동측 한라산 사면의 세 오름

제주시에서 출발하여 서귀포시를 향해 99번국도(일명 1100도로)를 따라 해발 1,000m를 올라서서 부터 1,100휴게소까지 차를 타고 가다 한라산 방향으로 바라보면, 세 개의 오름이 연이어 어깨를 기대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들 세 오름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쳇망(망체)오름, 이슬령오름 및 불레(볼레)오름으로 이름 붙여져 있는데, 서로 인접한 이유로 동시기의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오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산체의 모양과 구성성분이 서로 상이한 별개의 화산체이다.

이들 세 오름은 송이(분석)로 구성되어 있지만 송이의 성분은 서로 많이 상이하다. 우선 불레오름의 송이는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크기의 광물결정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반면, 이슬령오름과 망체오름은 큰 광물결정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슬령오름을 구성하는 송이는 흰색의 사장석광물을 가장 많이 함유하는 반면, 망체오름에서는 검은색의 휘석광물이 많아서 서로 쉽게 어느 오름의 송이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오름산체의 모양을 볼 때, 불레오름은 오랜 풍화와 침식을 받아 산사면의 모양이 복잡하고 분화구 또한 뚜렷하지 않은 반면, 이슬령오름은 거의 원추형에 가까운 원 화산체의 모양을 나타내지만 정상부의 분화구는 침식에 의해 매몰이 심한 편이다. 한편, 망체오름은 비록 북북동 방향으로 터져 있지만 분화구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화산체의 모양 또한 다른 두 오름에 비해 침식이 덜한 편이다.

따라서 침식에 의한 오름 산체와 분화구의 변형의 정도만으로 볼 때, 세 오름의 형성순서는 불레오름, 이슬령오름 및 망체오름의 순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별개의 화산체인 오름이 서로 인접하여 분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불레오름, 이슬령오름 및 망체오름을 기준으로 한라산 정상방향인 동쪽은 서쪽의 하류방향에 비해 보다 더 급한 지형경사를 보이고 있다. 이번 한라산탐사를 통해 한라산의 정상인근 윗세오름을 포함한 근처에서 현무암 용암이 다량으로 분출되어 남쪽방향(선작지왓 방향)과 서북쪽방향(만세동산 방향)으로 흘러내려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북쪽방향으로 흘러내려간 용암중에서 일부는 남북방향으로 어깨를 마주 대고 늘어선 망체오름을 포함한 세 오름에 막혀 더 이상 하류로 흘러가지 못하고 많은 양이 그 자리에서 고화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세 오름을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의 지형경사가 서로 매우 다르게 되었고 세 오름의 산체 모양 또한 동서방향이 부조화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차연 탐사위원(농업기반공사/지질분야)>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